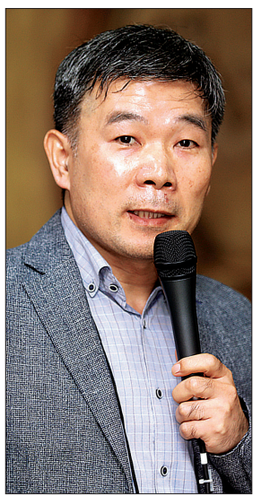
“대행선 대중에게 알리는 계기 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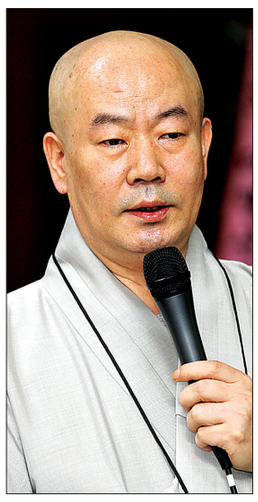
대행선연구원 제2회 학술대회

‘대행선 수행과 깨달음’ 주제로
10월 26일 한마음선원 본원서
수증관 · 수행체계 등 연구 발표

글= 신성민 · 사진= 노덕현 기자


김호귀 교수


김준호 교수


법상 스님


청강 스님


박소령 교수


고승학 교수



대행선연구원은 10월 26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대행선에서의 수행과 깨달음’을 주제로 제2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주제 발표 후 이뤄진 종합토론.

‘주인공 관법’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선사상을 학술적으로 조명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원장 이평래)은 10월 26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대행선에서의 수행과 깨달음’을 주제로 제2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대행 선사의 수행법에 대한 수증관 · 수행체계 등을 연구한 학자들의 논문들이 발표됐다.

대행선 · 묵조선 수증관 친화성 높아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는 ‘대행선 수증관의 구조와 원리’를 통해 대행선과 묵조선의 수증관이 접점과 친화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호귀 교수는 대행선 수증관의 구조를 자리(自利)와 이타(利他)로 나눴다. 대행선에서 “관법의 구조는 전체적으로 자리의 성격이 농후하고 오공법은 이타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법과 오공법은 나눠진 것이 아니라 호융된다는 게 김호귀 교수의 설명이다.

김호귀 교수는 “자리에 바탕한 이타가 아니면 공허하고, 이타에 근거하지 않은 자리는 독선”이라며 “그래서 관법의 수행과 오공법이 실천은 차제적이고 개별적인 구조가 아니라 동시적 · 호융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행 선사의 수증관 원리에 대해서는 △즉생활적인 원리 △‘수증불이(修證不二)’를 강조하는 점 △한마음의 이치가 현성(現成)되는 점을 주목했다.

또한 김호귀 교수는 묵조선 수증관 원리가 좌선을 통해 개개인이 ‘본래성불’임을 자각하는 것이며, 이는 ‘생수(生修)’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임을 제시했다.

묵조선 수증관의 구조에 대해서는 △수행과 깨달음이 좌선을 통해 드러나는 지관타좌 △몸과 마음에 자유를 얻어서 분별과 집착이 없이 초월된 삶으로 나타는 신심탈락 △본래성을 그대로 자각하는 행위인 본증자각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호귀 교수는 “대행선과 묵조선에서 수증관의 접점은 구조의 측면에서 주인공에 대한 믿음과 놓고 맡겨둠과 지켜봄의 방식이 본증자각 · 지관타좌 · 신심탈락에 근접하며 원리적으로는 수증불이에 근거한다”면서 “대행선의 수증관은 조사선 수행의 전통에 바탕하면서 자리의 관법과 이타의 오공법이라는 보살도와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래선 바탕한 현대적 생활선”

대행 선사가 제시한 ‘주인공 관법’이 여래선을 바탕으로 한 현대적 생활선이라는 주장도 눈길을 끌었다.

박소령 동국대 교수는 대행 선사의 법어 중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이 관법은 생활선이면서 여래선”이라고 설했던 것을 주목하며 불교전통의 실천사상인 ‘여래선’과 대행선의 관계에 대해 조명했다.

박소령 교수는 초기불교 경전 〈증일아함경〉 등을 근거해 여래선은 “대승적 일심과 반야 그리고 여래장 사상이 종합된 실천관”이라고 분석했다.

이후 여래선은 중국 달마선종의 실천원리로 전개됐으며 선종 4조 도신, 6조 혜능, 마조도일 선사 등도 여래선을 표방했다.

“중국적 조사선법의 실천원리는 대승실천사상인 반야공관과 여래관이 압축된 여래선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전제한 박소령 교수는 대행 선사의 주인공 관법도 이 같은 ‘대승적 여래선’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소령 교수는 “주인공 관법은 마음의 진실한 주체로서의 주인(主人, 여래관)과 마음의 객체로서의 만법이 공(空, 반야공관)한 주인공을 한마음에 의거해 관하는 실천체계”라면서 “한마음, 주인공, 오공 사상이 종합된 실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생활선에 대해서는 대행 선사가 설한 ‘행주좌와 관법’을 통해 분석했다. 실제 대행 선사는 “우리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선정에 들어있어야 하며 또, 들어있는 것”이라고 설했으며, 법문 중 주인공 관법을 ‘행주좌와 관법’이라 명명한 바도 있다.

이에 대해 박소령 교수는 “대행 선사가 ‘행주좌와 관법’을 말한 이유는 자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불교와 생활은 양립이 아닌, 생활이 곧 불교이기 때문”이라며 “선사는 불교 전통적 여래선을 시대에 걸맞은 주인공 관법으로 되살려 내 현대 대중에게 바로 실천해 자각할 수 있는 생활적 실천 수행법으로 새롭게 재탄생시켰다”고 대행선의 의미를 거듭 강조했다.

‘일상이 수행’, 대행선 수행체계

중앙승가대 외래교수 법상 스님은 〈한마음요전〉을 중심으로 대행 선사의 수행체계와 자비교화를 개론적으로 분석한 ‘묘공 대행의 수행체계와 자비교화에 대해’를 발표했다.

법상 스님은 대행 선사의 수행체계는 세 번 죽는(三死) 수행을 통해 삼공(三空)을 관하여 삼제(三諦)를 체득해 오공(五共)으로 드러내 삶의 현장에서 구현한 ‘생활 속의 참선, 참선 속의 생활’이라고 규정했다.

대행 선사의 체득내용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있음으로 해서 상대와 세계가 펼쳐진다는 연기적 관점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한마음요전〉 ‘수혜편’에 나타난 선사의 게송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법상 스님은 “대행 선사가 전한 깨달음의 진정한 내용은 ‘아무 것도 얻을 것이 없는 것이 진정한 도리’”라며 “이는 조사선에서 중시한 ‘증득의 도리’를 그대로 드러낸다”고 설명했다.

대행 선사 증명관, 어떻게 볼 것인가

동국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청강 스님은 ‘대행의 증명관 일고’를 통해 대행 선사의 관법 수행에서 증명관의 원리와 실천, 간화선과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했다.

청강 스님은 대행 선사의 증명관을 “견성하기 위해 본래 자신이 부처라는 믿음을 전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작동하게 하는 원리로 본래성불사상을 근간으로 한 불설론인 ‘한마음 · 주인공’을 제시했다.

대행 선사의 증명관 실천 체계로는 ‘믿음 · 놓음 · 지켜봄’ 3요소를 들었다. 이에 대해 청강 스님은 “주인공을 알고 싶은 간절함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인공에 대한 믿음과 놓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체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행 선사는 체험을 통해 편안함과 감사함 등이 나오면 이를 주인공에 회향하는 한편, 근본 참나인 주인공을 알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생기면 증명관을 해볼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강 스님은 대행 선사의 관법은 묵조선과 많은 공통점이 있으나 증명관은 간화선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했다. 공통점으로는 본래성불에 대한 깊은 믿음과 이에 입각한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를 것을 강조하는 점과 의정을 꼽았다. 하지만 화두 제시 유무와 의정의 의도성 여부에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대행 선사가 제시하는 증명관의 특징을 보면 선사의 관법 수행이 조사선 사상을 현대에 맞게 계승해 가는 과정에서 묵조의 사상과 유사한 반면 증명관은 간화선과 유사하다”며 “이는 불성 사상의 본각에 바탕을 둬 불성을 증명하는 시각(始覺)적 방법이다. 이러한 증명관은 선사가 제시하는 수증관에서 견성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준호 울산대 교수는 ‘초기불교의 자아와 무아관’에서 대행선의 정체성을 ‘한마음 · 주인공’이라는 술어에서 찾고 ‘자등명(自燈明)’ 불교정신과 무아설을 주목했다.

고승학 금강대 교수는 ‘화엄사상에서의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 중국 화엄종지엄의 수행론을 분석했다.

“대행선 연구 활성화 노력”

학술대회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 이사장 혜수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학술대회를 계기로 대행 선사의 수행법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발원했다.

혜수 스님은 “대행 선사는 언설로 다할 수 없는 수행을 통해 광대한 마음의 도리를 깨치신 후 한마음선원을 세워 평생토록 쉼 없는 법회와 설법을 통해 불법의 지혜를 전하고 각자 인생의 주인이 돼 대자유인으로 사는 길을 일러주셨다”면서 “선사의 가르침은 이제 눈 밝은 학자들을 통해 대행선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펼쳐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한마음선원이 일궈낸 성과는 모두가 선사의 신명을 아끼지 않은 수행과 깨달음의 산물”이라면서 “한마음선원의 출재가 제자들은 선사께서 체득해 제시한 불법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수행법이 학술대회를 통해 많은 대중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은 축사를 통해 “많은 업적을 이룬 스님들이 입적한 뒤 제자 간의 갈등 등으로 그 덕화가 퇴색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면서 “하지만 대행 선사께서 입적 이후 6년이 지났음에도 2번의 학술대회가 열리고 문중이 여법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선사의 수행과 덕화가 더욱 빛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상찬했다.

이어 “대행 선사가 걸어가신 그 길 따라, 앞으로 더 많은 대행 선사와 같은 사람이 나오는 계기가 되는 학술연구와 발표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을 비롯해 (재)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연구실장 혜선 스님,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혜안 스님, 박종수 현대불교신문사장, 김용표 동국대 명예교수 등 사부대중 600여 명이 참석했다.



(사)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은 불조의 혜명에 굳건히 의지하고 현재 봉착한 한국불교의 위기를 진단하여 종파의 분열과 무너진 법계질서를 바로잡아 새로운 승풍을 진작하여 일불제자의 승가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통한 한국불교의 중흥을 목표로 하는 창종의 변을 제방에 고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정진의 길에 함께 할 제방의 큰스님들과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단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사업
– 장례문화연구 및 납골당 운영사업
– 승려등 수행자의 복지사업

승 정 원 장 월해 총 무 원 장 법천당 청운
감 찰 원 장 성호 종 회 의 장 법륜 호 법 원 장 해월
포 교 원 장 덕해 교 육 원 장 영호 규 정 원 장 혜성
감 찰 부 장 경오 호 법 부 장 문경 포 교 부 장 장문
규 정 부 장 성철
서울교구원장 법혜 대전교구원장 수진 충남교구원장 혜성
울산교구원장 정오 부산교구원장 법진 경남교구원장 불해
경북교구원장 천호

한마음 108종도 일동

본 종은 종도화합의 종풍을 확립하고자 상생을 위한 상호협의를 종무행정의 기본으로 삼고자 합니다.

본 종단은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7-7호. 법인등록 194621-0000530으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한마음조계종에 대한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여주신 제방의 대덕 큰스님이하 대중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는 종단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도모집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내 외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과 간부스님에 한하여 추대장 및 위촉장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개인 사암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 총 본 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 서울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808호
휴대전화 011-870-0021

대행 선사 가르침, 과학 만나다

한마음과학원 제3회 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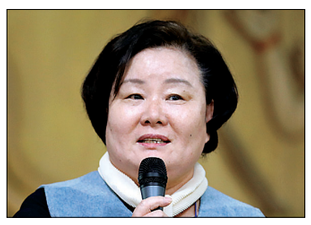
10월 27일 한마음선원 본원서
과학 · 교육 · 심리 등 제반 학문
대행 선사 가르침 접목 연구

글= 신성민 · 사진= 노덕현 기자


이준엽(의학팀)


이상호 박사


김영래 교수


김민선(교육학팀)


혜유 스님


박근영(공학팀)


최재석(식물팀)


김재영 교수


안영우 전문의


랄프 패슬러 교수


한마음과학원은 10월 27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제3회 한마음과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모든 발표자가 모여 진행한 종합토론.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란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교화에 힘쓴 대행 선사(1927~2012). 대행 선사 사상을 의학 · 교육 · 환경 ·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 연구한 결과물들을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은 10월 27일 오전 9시 안양본원에서 '제3회 한마음과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마음과학 학술대회서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과학 · 교육 · 의학 등에 접목 · 연구한 논문과 계획 보고들이 대거 발표됐다.

한마음과학원 식물팀은 '선법가가 콩나물의 발아, 성장 및 질병저항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대행 선사의 선법가가 식물 재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들은 음성대조구로서 무처리군, 양성대조구로서 단일파장 처리구(1kHz)와 모차르트 음악처리구, 양성대조구로서 선법가 처리구(삼세가 둘 아닌 노래)로 나눠 실험을 진행했다.

식물팀은 콩나물을 20℃에서 5일간 콩나물 재배기를 이용해 암조건으로 배양했으며, 1일 2회 각각 60분씩 음원을 처리했다. 이 같은 실험은 각 군당 약 1000개체를 대상으로 3번에 걸쳐 이뤄졌다.

식물팀은 "실험결과 선법가군과 모차르트 음악군에서 질병 발생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면서 "추가적인 생리생화학적 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SCI급 논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마음법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영우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공생 생명체로서의 생명의 기원과 진화' 발표를 통해 홀로게놈 개념을 중심으로 생명 진화에 대해 조명했다.

생명현상에 대해서 대행선사가 일찍이 명료하게 밝힌 것은 '생명체란 개체로 따로 존재하는것이 아니고 무수한 자생중생을 내포한 더 큰 하나'이다. 발표자는 이러한 개념에 가장 유사한 것이 '홀로게놈'이라고 보았다.

'홀로게놈'은 숙주와 공생미생물을 합쳐서 부르는 새로운 용어다.

안영우 전문의는 "홀로게놈의 변화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확실히 전해지고 있다"면서 "바이러스나 세균은 새로운 종을 탄생하는 데 있어 결정적 구실을 한다. 동물이나 식물의 진화를 일으키는 힘은 그들의 공생미생물 간의 협력을 통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홀로게놈 개념은 의학적 치료와 질병 예방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며 "바이러스나 세균 무리가 수십억 년 동안 유전자 가공을 자연적으로 해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서 큰 틀에서 보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대행교육학 정립 시도 '눈길'

대행 선사의 가르침과 주인공 관법을 어떻게 교육학적으로 정립할 수 있을지를 밝힌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기도 했다.

김영래 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 교수는 '지혜교육으로서의 한마음교육 연구'를 통해 대행 선사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관을 비교하고 한마음교육관에 대한 접점을 찾았다.

김영래 교수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지혜는 '대상을 참답게 원리적으로 아는 것'인 반면 대행 선사에게 있어 지혜는 한마음에 직결된 한생각의 지혜이며, 일체에 통신돼 이루지 못하는 바가 없는 지혜라고 분석했다.

순수한 진리,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욕망을 극복하는 '자기초월의 길'이 필요한데 대행 선사는 이를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김영래 교수는 주장했다.

김영래 교수는 "선사의 가르침대로 일체가 둘이 아니며 나 아님이 없음을 아는 지혜를 얻고 일체와 더불어 공심, 공체라는 것을 알고 이 도리를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론적, 체험적으로 증명해낸다면 보편적 지혜교육론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마음과학원 교육학팀은 '대행교육학 정립을 위한 실천사례 연구'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주인공 관법을 적용한 사례를 소개했다.

지도 사례를 통한 주인공 관법 중심의 대행교육에 대해 교육학팀은 "학습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자신의 마음작용을 계속 지켜볼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한다"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주인공 관법을 적용해 마음의 힘을 기르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와 자비를 구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행 선사의 한마음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대행교육학은 종교의 틀을 넘어 현대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난제들을 해결하고 일상 속에서도 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대행 교육을 학교 교육과 일반 사회교육에 확장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천적 접근들과 연계해 학문적 이론체계가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한마음과학원 공학팀이 '대행 선사 법문에 나타난 에너지 발생 장치의 기초연구를 위한 활동보고'를, 의학팀이 '한마음 관법 수행에서 나타난 뇌파 연구 계획'들을 소개했다.

대행 선사 수행법, 세계로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한마음과학원의 연구 스터디 이외에도 개인들의 연구 발표도 이뤄졌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에서 수행 중인 혜유 스님이 발표한 '한마음선원 해외포교 현황'이었다.

스님의 발표 논문은 지난해 독일 본대학 비교종교학 박사 학위 논문 '서양 내 한국불교-대행 선사 사상을 중심으로' 중 해외포교 부분을 발췌한 것으로, 한마음선원 해외지원의 역사와 신도 구성 등에 대한 의미를 살폈다.

혜유 스님에 따르면 한국불교 해외 진출은 이민자를 위한 사찰을 건립한 1970년대부터 이뤄졌으며, 한마음선원은 1980년대 중반부터 외국지원을 개원하기 시작했다.

한마음선원의 해외진출은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접한 이민불자와 현지인들의 요청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다. 미주지역은 대행 선사 법어집을 읽고 미주 이민불자들이 개원 설립의 요구가 이어졌고 1987년 산호세지원, 알래스카지원이 1988년 모건힐지원이 잇달아 개원하며 미주 포교의 서막을 알렸다.

독일의 경우에는 글루브레히트 前 하노버 대학 교수가 1974년 처음 대행 선사를 친견한 이후 30차례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가르침을 배웠고, 1996년 독일지원 개원에 주축이 됐다.

남미 지역인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지원과 뚜꾸만지원은 대행 선사의 가르침에 감화받은 이동구 · 서아리 씨가 크게 마음을 내어 이뤄졌다.

현재 한마음선원 해외지원은 10곳으로 조계종 소속 사찰 중 가장 많은 해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 각지에 있는 만큼 해외지원의 신도 구성들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독일지원과 부에노스아이레스지원은 한국인과 현지인이 1/2씩 차지하며, 한국 교민들이 많은 태국과 미주지원은 대부분의 신도가 한국인이다. 반면 아르헨티나의 뚜꾸만지원은 불교 수행에 관심 있는 현지인들이 법회에 참여하고 있다.

혜유 스님은 "한마음선원은 종교 전파의 개념이 아닌 진정한 나를 알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에 목적을 둔다"며 "이러한 태도는 각각의 나라, 문화에서도 화합돼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알릴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해외포교의 중요한 요소로 '가르침'과 '수행법'을 꼽았다. 실제 대행 선사의 가르침과 주인공 관법은 해외지원의 신도들이 지속적으로 선원을 다니는 중요한 배경이기 때문이다.

혜유 스님은 "대부분의 해외 신도들은 한마음선원을 다니기 전 이미 불교를 알고 참선을 접했다"면서 "주인공 관법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선수행법이기에 미국, 독일, 태국 등 지원 신도들은 대행 선사의 생활선에 강한 매력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양에서 유행처럼 받아들여진 젠(Zen) 문화에서 삶의 해답을 찾지 못하는 현지인 불자들은 명확하고 현대에 맞게 설명되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행법으로 받아들였다"며 "대행 선사의 한마음사상과 주인공 관법이 국가와 인종에 상관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술대회에서는 김재영 서강대 교수가 '한마음연구와 종교심리학 운동의 적합성- 대행선사와 윌리엄 제임스를 중심으로', 랄프 패슬러 마르부르크대 교수가 '고대 문헌 연구가 대행 선사 법문 번역에 기여하는 점'을 각각 발표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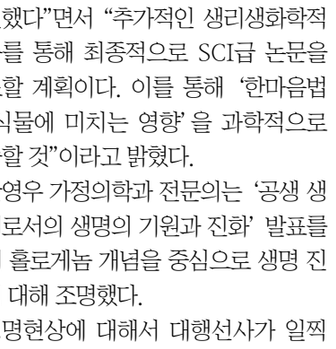
"마음 본질 연구 법석 펼치겠다"

한편, 한마음과학원은 학술대회에 앞서 입재식을 봉행했다. 이날 입재식은 삼귀의, 뜻으로 푼 반야심경 봉독, 격려사, '한마음 과학'에 대한 대행 선사의 영상 법문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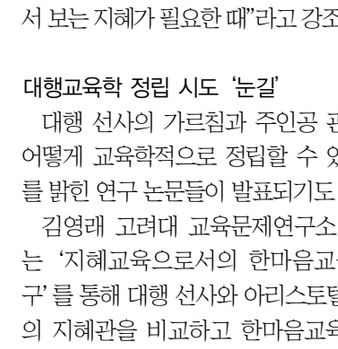
(재)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대행 선사께서는 항상 '자기 안에 있는 무한한 법을 알아서 유한한 세계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하셨다"면서 "이 말씀이 한마음과학원에서 각 전문 분야를 통해 마음의 본질을 연구하고 전달하는 일을 쉼 없이 해 나가는 이유다. 앞으로도 이렇게 법석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술대회에는 (재)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주지 혜솔 스님을 비롯해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등 전국 · 해외 지원장 스님, 박종수 현대불교신문사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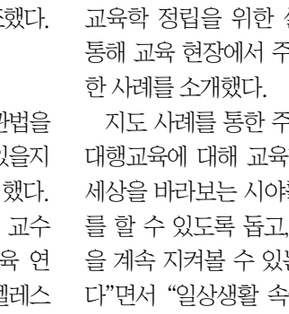
착한 가격 높은 퀄리티의 2019년 불교카렌다 품질이 확실히 다르다!!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록(E-Book)으로 카렌다 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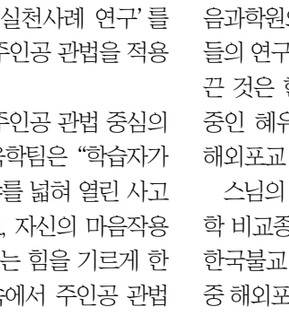
삶의 향기(법정스님의 좋은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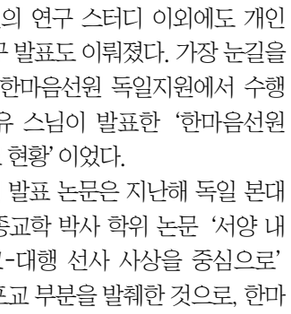
부처님과의 소통(사찰의 옛 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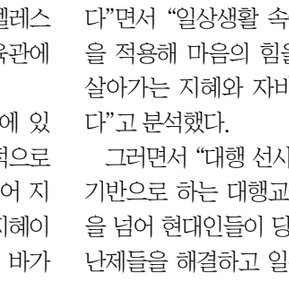
동승의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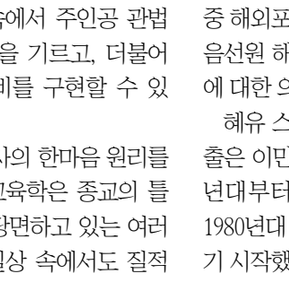
지혜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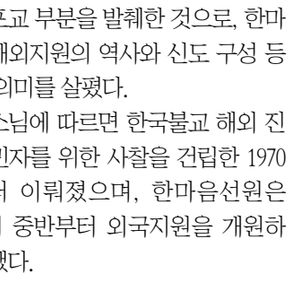
연꽃향기



동승이야기



민족의 산하



법음이 깃든 산사

위 카렌다 외에도 총16종의 카렌다가 있습니다.
성 안내는 그 얼굴 미소 / 우리말로 풀어 쓴 반야심경 / 세계불교 명찰 / 심우도 사구게 / 관음응신도 / 운봉스님의 달마도 / 산사에 피는 야생화

삼보불교카렌다 T. (031) 732-9905 F. (031) 732-8972
www.samboca.co.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로그를 보시기 힘드신 분들은 카다로그나 샘플 발송을 요청하시면 보내드겠습니다.

삼보불교카렌다 임시 할인가 보급 단행
500부 이상 6절 1400원 12절 1100원 보급기간 2018.8.16~10.15

6절 (305 × 306)	정가 1,800원	1,400원(500부 이상) 100부 주문시 1,600원 200부 이상 주문시 1,500원 2,000부 주문시 1,300원
12절 (255 × 260)	정가 1,600원	1,100원(500부 이상) 100부 주문시 1,300원 200부 이상 주문시 1,200원 2,000부 주문시 1,000원
미니스프링 (90 × 98)	정가 800원	할인가 600원
미니 수첩 (90 × 130)	정가 1,000원	할인가 700원
비닐캡 (90 × 160)	정가 800원	할인가 400원
탁상카렌다 (260 × 190)	정가 2,500원	할인가 1,800원(금박인쇄)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록(E-Book) 보는 법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삼보불교카렌다 검색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 오셔서 아래 eBook 바로보기를 클릭
삼보불교 카렌다 DONGJIN SAMBO BUDDHISM CALENDAR 삼보불교 불교카렌다 불교현수막 불교인쇄물 기타불교용품


삼보 2019년 불교카렌다 카다로그
새창에서 eBook 바로보기
바로보기를 클릭하시면 eBook 을 보실 수 있습니다.